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4년 1월 뉴스레터 vol. 72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채우고 비우고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다
- 공간채비 이야기 4살이 된 공간채비는 어떻게 성장할까?
- 장례후기 많은 분들이 저처럼 고인을 특별하게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 숫자로 보는 채비 앞으로 반려동물 장례비, 지금보다 1.7배 더 늘어날 것!
- 메멘토모리 4.3,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죽음



2024

HAPPY
NEW YEAR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푸른 용의 기운이 솟구치는 이번 해에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사랑
으로 더욱 성장하는 조합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임직원 두손모아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다



2024년 1월 1일 해맞이를 80여 동네 주민과 함께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보았다. 날이 흐려 제시간에 해가 보이진 않았지만, 오전 8시 넘어 겨우 볼 수 있었다. 해마다 보는 일출이 뭐 그리 대단할까만, 내 생각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일은 신성한 종교의식처럼 경건해 보인다.

올해 1월로 나는 환갑을 맞았다. 어이가 없다. 이토록 많은 나이라니! 주변에서는 60이 뭐가 많냐, 60은 청춘, 인생 60부터라고 말하지만 다 헛소리다. 60은 노년기에 접어드는 나이다. 무엇보다 신체의 변화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머리는 반백이고, 시력은 흐리고, 기억력은 예전만 못하다. 왜 그리 영화 제목과 배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지.

내가 노인인 것은 생명 활동의 필연적인 현상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내가 노인들을 관찰하면서 눈살을 찌푸렸거나 혐오했던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예컨대 식당에서 일하는 분에게 반말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 자리를 양보받고도 ”고맙다“ 인사하지 않는 것, 생각이 다르다 해서 적대하는 것...

이왕이면 품위 있는,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다. 될 수 있으면 필요한 말, 도움 되는 말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 작게나마 기부하고 봉사해야겠다. 죽는 날까지 내 발로 걷기 위해 운동하고, 책을 읽고 정보를 접하며 깨어 있어야겠다. 성숙한 인간이자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겠다. 편협하지 않고 지혜로운 노인으로 늙어야겠다. 이미 그런 모범을 보인 선배들이 있지 않은가.

최근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은 경남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며 장학재단 설립, 학교 설립 후 국가 헌납,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 지원 등 일평생 선한 영향력을 숭선수범한 분이다. 그는 많은 언론사의 요청에도 단 한 번도 인터뷰한 적 없다.

평생 자가용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한약방 건물 3층을 집으로 사용했다. 2005년 해외여행을 딱 한 번 다녀왔는데, 6.25 전쟁 때 전사했다고 알려진 친형을 찾으러 평양에 갔을 때이다. 수천 명에 이르는 가난한 학생에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다. 그는 장학금을 주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은 어느 자리에선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다른 나의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것은 세상의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겠기에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94년 작고한 장일순 선생은 원주에 대성학교를 세운 교육자이자 신용협동조합운동과 한살림운동을 펼친 사회운동가이다. 또 1970년대 원주를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본거지로 만든 지도자이자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공생과 살림의 문명을 주창한 생명 사상가였다. 그는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다. 그나마 선생의 말씀을 모은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왔다는 것을>이 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온다.

“친구가 똥물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바깥에 선 채 욕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기 쉽습니다. 대개 다 그렇게 하며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같이 똥물에 들어가서 ‘여기는 냄새가 나니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겠느냐’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친구도 알아듣습니다. 바깥에 서서 입으로만 ‘나오라’ 하면 안 나옵니다.”

2021년 4월 작고한 채현국 선생은 한때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전국 2위일 정도의 거부(巨富)였는데, 어느 해 홀연히 직원들에게 전 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업을 정리했다. “돈 버는 것이, 권력이, 명예가, 신앙이 되어버리기 전에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핍박받는 민주화 인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활동 자금을 지원하였고, 1988년부터 효암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해 교육자로 살다 생을 마쳤다. 그의 교육철학은 단순 소박했다. ‘생명의 이치에 따라 즐겁고 발랄하게 함께 살기.’

그 자신 노인이면서 대접만 받으려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노인들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노인이라고) 봐주지 마라.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 너희들이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까딱하면 모두 저 꼴 되니 봐주면 안 된다”거나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건 거짓말이다. 농경 시대의 꿈 같은 소리다. 늙으면 뻘뻘해진다“ 같은 말들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비판은 하나의 금기사항이었기에.

이 훌륭한 멘토들을 흥내내다 보면 조금은 닮을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은 노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환갑의 아침, 생각이 많아진다.✽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채우고 비우고’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4살이 된 공간채비는 어떻게 성장할까?



공간채비가 한국 나이로 4살을 맞았다.

잘 버텨왔고 잘 성장해왔다. 많은 조합원의 도움의 손길과 격려 덕분이다.

그간 1,000회에 가까운 행사를 치렀고, 다녀가신 분은 어림잡아 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 중에 의미 있는 행사가 많았다. 노동 관련 기자회견 및 세미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포럼과 세미나, 기업 직원 워크숍, 작은 공연들, 출판 기념회, 성소수자 모임, 송년회들이다.

무엇보다 우리 조합이 공간채비에서 진행한 30여 건의 ‘채비추모식 장례’는 우리 조합의 장례서비스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에 관련된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모두가 바라기만 했던 것을 실제로 만들어낸 실체적 공간이 바로 ‘공간채비’이다.

공간채비는 장례문화 변화를 위한 플랫폼이 되자며 출발했고, 그렇게 진행해 왔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연대와 시민활동과 기업 활동을 위한 유연하고 다양한 쓰임새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23년 하반기 한 청년이 공간채비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한 것은 공간채비가 가진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공간채비가 장례문화 변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제시하고, 확산해야 한다.

구성원의 노령화로 임종 돌봄을 피할 수 없거나, 지역 돌봄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사회, 사회적 연대경제, 공공돌봄, 종교 관련 모임과 조직들이 공간채비와 같은 추모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 마을에서 죽고 애도 받는 '애도 지역공동체, community grief care'를 위한 플랫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시설과 재정이 아니라 결국 다가올 앞날을 헤아리는 지혜와 따뜻한 연대를 향한 의지이다. ✨

공간채비 매니저 | 전승욱 부장



채비에서 엄마를 모신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병원 장례식장이 싫어서 형식적이지 않으면서 고인을 정성껏 모실 수 있는 소규모 장례식장을 찾다가 채비를 알게 되었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장 감사했던 일은 입관할때 엄마와의 시간을 충분히 갖을 수 있었던 것과,
추모식때 온전히 엄마만을 추억하고, 7자매가 온전히 한마음이 되어 엄마를 보내드릴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신 조문객분들이 어떻게 이런곳을 알았냐고 너무 좋다고 들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비를 알게 되고, 저처럼 고인을 특별하게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레 조합원

짧은 시간에 짧은 장례절차를 외국인의 신분으로 치뤄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례지도사님의 프로페셔널한 도움으로 너무 순조롭게 장례식을 마쳤고 본국으로 이송해야 하는 절차에 필요한 서류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세심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있어 감사하고 다행스럽습니다.

KIM NAIN 조합원

한겨레두레를 두 번째 이용합니다.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 보여주신 한두레의 정성과 배려에 감동해서 이번에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장례식을 진행 해주신 장례지도사님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장례 전반을 물 흐르듯이 완벽하게 잘 진행해주셨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잘 수용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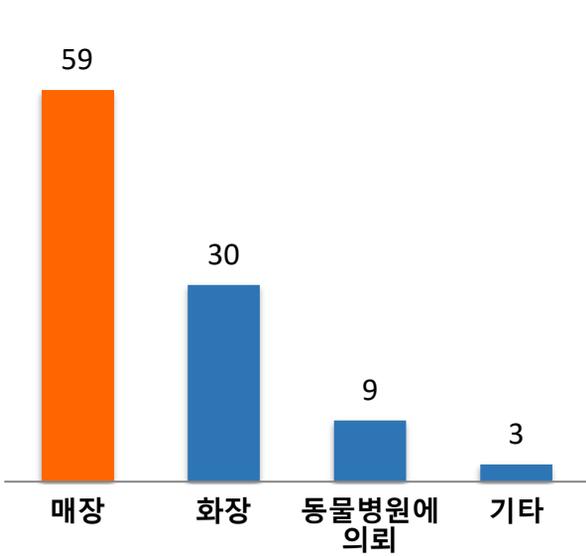
진원섭 조합원

자기 부모 돌아가신 것 처럼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정성으로 저희 어머니 가시는 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입관식을 하면서 우리 모든 가족 안에서 치유와 화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례절차를 주관해준 윤성민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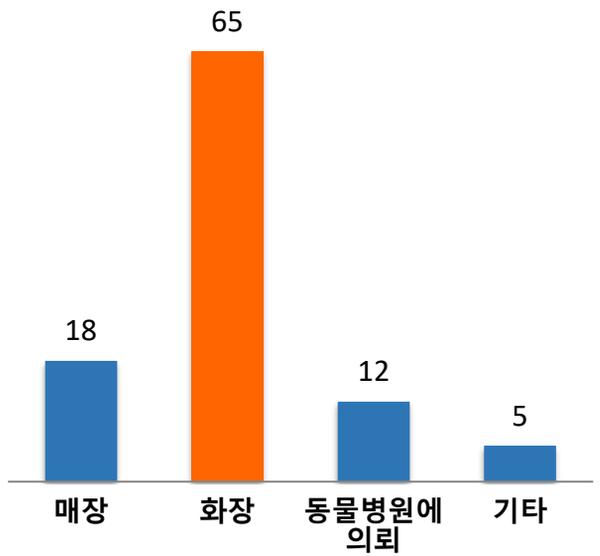
이병학 조합원

1 펫로스가구의 반려동물 장례 방법 반려동물 장례 시 앞으로 화장 더 증가할 것!

현재 반려동물 장례 방법 (펫로스 경험 가구, %)



향후 예상 반려동물 장례 방법 (펫로스 경험 가구, %)



2 펫로스가구의 반려동물 장례비 예상 앞으로 반려동물 장례비, 지금보다 1.7배 더 늘어날 것!

현재 반려동물 장례비** (펫로스 경험 가구)



향후 예상 반려동물 장례비** (펫로스 경험 가구)



* 출처: KB금융그룹,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매장, 종량제봉투 폐기 제외

4.3,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죽음



나무도장

권윤덕 | 평화를품은책

아름다운 휴양의 섬 제주의 돌담, 오름, 바닷가 곳곳에는 슬픈 역사가 배어 있습니다. 1947년 ‘관덕정 발포 사건’ 이후 1954년 ‘한라산 금족령 해지’ 때까지, ‘4·3’은 당시 제주 인구 10명에 1명꼴인 2만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죄 없이 죽어간 역사입니다.

오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었어야 할 그 시절에 제주에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무 도장》은 그때 그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제주4·3’의 슬픈 역사를 간결한 글과 한편의 영화 같은 그림으로 돌아보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림책입니다.

나무도장은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책 속의 주인공인 열세 살 소녀 시리는 집안 누군가의 제삿날,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섭니다. 두 사람이 다다른 곳은 산자락 우거진 덩굴 사이 입구가 좁다란 동굴. 어머니는 동굴 속 어디쯤 자리를 잡고 앉아 시리에게 10여 년 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해방공간’의 제주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물로 뱅뱅 둘러싸인 그 섬에 육지 경찰, 서북청년단, 군인들이 들어와 벌어진 비극을요.

검거를 피해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과 이들을 토벌하려는 군경과 서북청년단 사이에서, 애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려 토벌대의 총탄에 죽어 가고, 적잖은 사람들이 경찰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앞잡이’로 몰려 무장대의 죽창에 죽어 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토벌’에 나섰던 동생으로부터 가슴 아픈 고백을 듣습니다. 동굴 속에 숨은 주민들을 발담 앞으로 끌고 가 사살했는데, 그 중 한 여인이 품에 안고 있던 어린아이가 잊히지 않더라는, 그 아이가 아직 살아 있을지 모른다는.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발담 앞으로 가, 죽은 어미의 치마폭에 쌓여 있는 아이를 데려옵니다. 바로 지금, 동굴 속 어머니 앞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리를. 어린 시리의 작은 손에는 나무 도장 하나가 꼭 쥐여 있었습니다. 시리는 어머니와 함께 동굴을 나갑니다. 11년 전 어머니 품에 매달려 나갔던 그 길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제삿날입니다. 제사엔 시리가 좋아하는 외삼촌도 옵니다.

그림책이 그 무엇보다도 놓칠 수 없었던 것은 ‘평화와 인권’의 가치와 그것을 지켜 줄 인간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비극의 역사를 끝없이 돌아보아야 하는 까닭은, 진상을 규명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좀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의미와 방향을 찾는 데 있다고, 그림책의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2023년 12월

김나인 조합원 지인상
 손백호 조합원 모친상
 홍순덕 조합원 모친상
 박현숙 조합원 모친상
 강명구 조합원 모친상
 이한기 조합원 모친상

김중국 조합원 모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양미애 조합원 시아주버니상
 조영자 조합원 시모상
 김창언 조합원 자녀상

구은경 조합원 모친상
 이한련 조합원 모친상
 신수정 조합원 시모상
 정태성 조합원 부친상
 이인재 조합원 모친상
 조현정 조합원 부친상

2023년 11월

모성훈 조합원 모친상
 강정자 조합원 모친상
 안병렬 조합원 모친상
 장국진 조합원 모친상
 진원섭 조합원 배우자상
 박태호 조합원 지인상
 반민석 조합원 부친상

이창우 조합원 부친상
 유근혁 조합원 모친상
 이지숙 조합원 조모상
 윤정현 조합원 부친상
 윤미현 조합원 시부상
 이동근 조합원 장모상

최대원 조합원 형제상
 정홍근 조합원 부친상
 박희주 조합원 모친상
 김종필 조합원 부친상
 오종수 조합원 장모상
 문희정 조합원 모친상

2023년 10월

이호중 조합원 부친상
 남종영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박예진 조합원 시부상
 김국영 조합원 부친상
 윤병훈 조합원 모친상

이병학 조합원 모친상
 전동선 조합원 부친상
 장동현 조합원 부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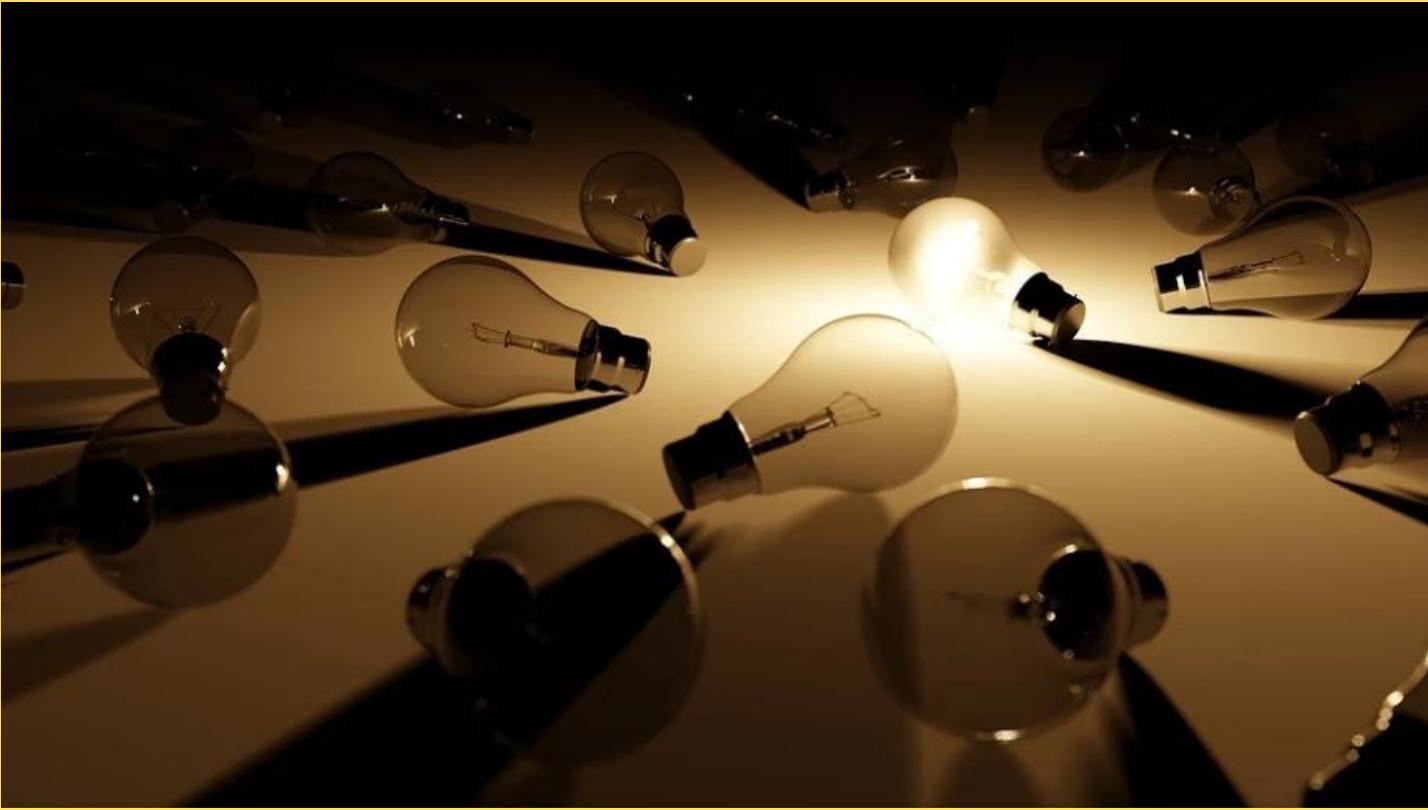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KGK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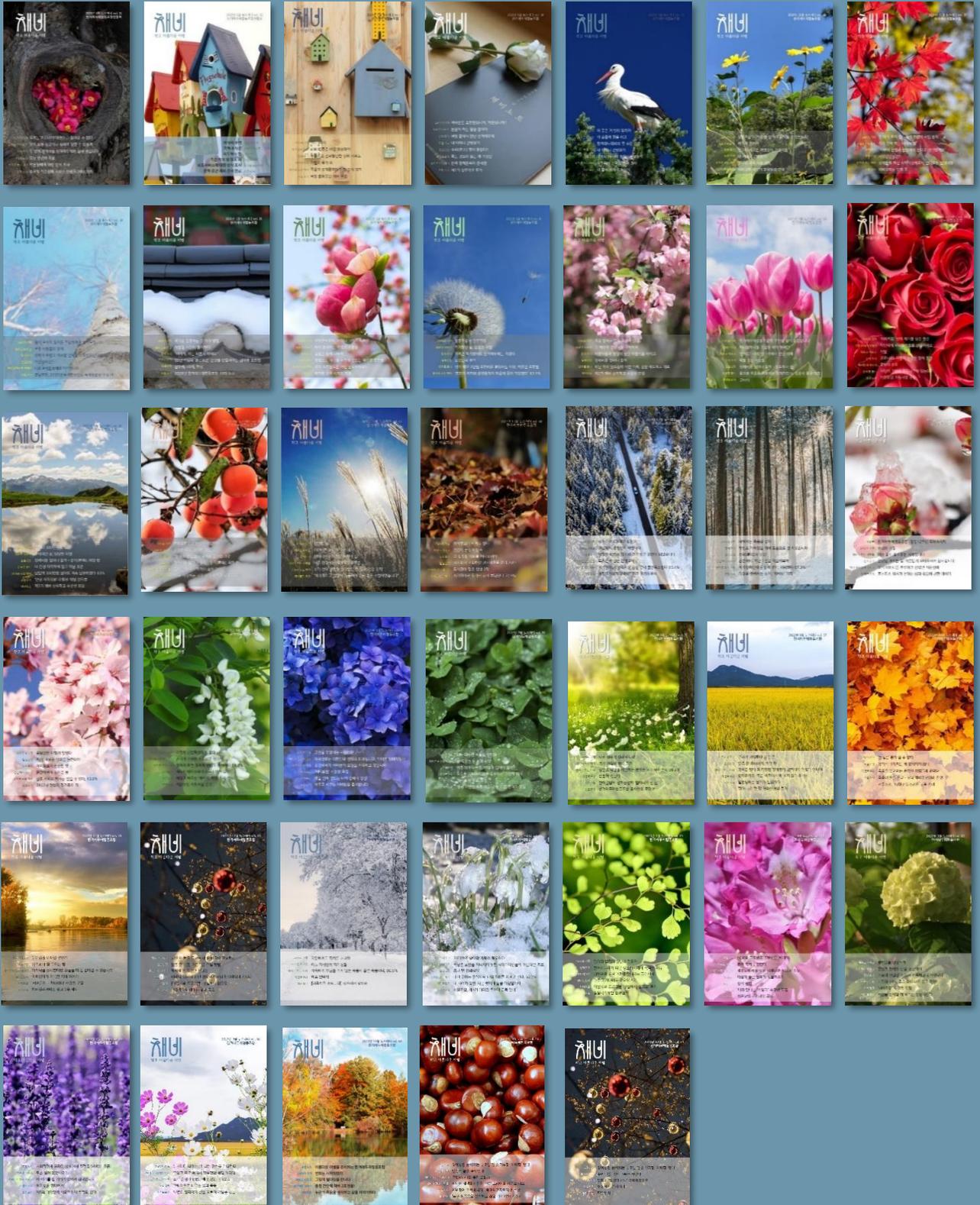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